

6·25전쟁기 한국공군의 성장과 미 공군 제6146부대의 지원

장 성 규*

1. 머 리 말
2. 한국공군의 태동과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제한적인 지원
3. 6·25전쟁 초기 제6146부대의 전투지원
4. 대한민국공군 3개년 계획과 제6146공군고문단의 창설
5. 맺 음 말

1. 머 리 말

1949년 10월 1일 육군으로부터 독립한 신생 한국공군은 전투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6·25전쟁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전쟁을 통해 전투력과 조직규모를 꾸준히 신장시킨 한국공군은 1951년 9월에 유엔군으로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공군으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1952년 8월에는 미 국무

* 국방대학교 박사과정

부로부터 주한미공군고문단의 정식 설치를 인가받아 조직과 전력 확장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공군은 전쟁을 통해 진정한 개별 군종으로 거듭났으며 미 공군과 공고한 군사관계를 맺어 전후 현대적인 공군으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전쟁 중 한국공군의 성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미 공군은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였는가? 이것이 본 논문에서 다루는 핵심 질문이다.

한국공군의 성장 배경에는 미 공군 제6146부대가 존재하고 있었다. 제6146부대는 6·25전쟁 발발 직후 한국에 전개한 최초의 미 공군부대이다. 제6146부대는 한국공군과 함께 최전방에서 전투를 수행하였고 1951년 10월 한국공군이 자주적인 작전능력을 갖춘 이후 훈련 및 감독임무를 수행하였다. 1952년 8월 15일 미 국무부가 주한미공군고문단의 설치를 정식으로 인가하여 제6146부대는 공군고문단으로 재창설되어 한국공군 발전의 통로가 되었다.

과거 6·25전쟁의 항공전과 관련된 연구는 당시 항공전역을 주도한 미 공군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¹⁾ 반면 상대적으로 활동이 적었던 한국공군에 대한 연구는 자료의 부족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입체적 조명이 어려웠다. 다행히 오늘날 6·25전쟁에 대한 국내학계의 지속적인 연구·발굴 노력으로 한국공군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연구물이 축적되고 있다.²⁾ 이들 논문은 전쟁 전 공군의 창군과 발전상, 전쟁 중 공군의 작전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공군을 지원한 제6146부대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 1) 대표적인 6·25전쟁 관련 미 공군 역사자료는 미 공군대학 역사과(Historical Division Air University)에서 1953년에 작성한 *United States Air Force Operations in the Korean Conflict*(AHS-71, 72, 73)과 Robert F. Futrell의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rev. ed.(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이 있다. 이 저서는 미 공군 중심으로 편집되어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의 활동에 대해서는 극히 일부분만 다루고 있다.
 - 2) 이명환, 「공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제68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김경록, 「6·25전쟁 이전 공군의 창군과 전력증강」, 『軍史』 제73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한국공군과 미 공군의 1차 사료를 활용한다. 제6146부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공군역사기록관리단이 미 공군 역사연구소(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에서 수집한 '제6146부대사'와 한국공군의 작전기록, 주요서신, 행정문서 등을 교차적으로 검토한다. 한국공군의 성장과 제6146부대의 고문단 재창설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공군의 문헌을 1차적으로 사용하고 미 국립문서보관소의 Record Group 341³⁾로 분류되어 있는 자료 중 전후 미국의 한국군에 대한 정책과 전력증강 문제를 논의한 문건을 활용하여 입체적인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제6146부대의 활동배경과 성격, 한국공군의 작전 독립과 규모 확장에 제6146부대가 미친 영향 등을 보다 사실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전쟁기간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가 발전적인 관계를 모색해 나간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더불어 한국군과 미군의 미래지향적 관계설정에 중요한 참조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조는 먼저 제2장에서 전쟁 전 한국정부의 공군력 강화노력과 이에 대한 미국의 제한적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제3장에서는 한국공군이 제6146부대와 함께 전투임무를 수행하면서 성취한 성장과 발전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한국공군과 정부가 미 공군과 정부를 설득하여 전력증강의 창구가 되는 공군고문단의 정식 창설을 이루어낸 과정을 밝힐 것이다.

3) RG 341 Headquarters U.S. Air Force 중 OPD 091.711 Section 2에는 1952년 당시 한국 공군의 전력증강요구에 대해 합참과 극동군사령부 미 공군 지휘부 간의 논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어 있다.

2. 한국공군의 태동과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의 제한적인 지원

6·25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승만 대통령은 공군력의 강화를 도모하였다. 그는 북한과의 군사력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군의 보유를 주장하면서 퇴역 미 공군 소장 체놀트(Claire L. Chennault)를 통해 항공기 99대로 이루어진 한국공군 편성계획을 맥아더 장군에게 제출하였다.⁴⁾ 이 계획에는 25대의 F-51 무스탕전폭기 도입안이 포함되어 있었다.⁵⁾ 무초(John J. Muccio) 주한 미 대사도 “본인이 요청한 해안경비대와 공군지원에 관한 조기결정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⁶⁾라며 이승만 대통령의 공군 보유계획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정부의 전쟁 전 공군력 강화노력은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낮게 평가함에 따라 결실을 맺지 못했다. 1950년 1월 상원에 상정된 한국 추가원조법안이 부결되었고 애치슨 국무장관은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시켰다.⁷⁾ 이러한 미국의 대한 정책기조에 부응한 맥아더는 남한의 군사력 증강은 남북한 간의 전쟁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며 연락항공기의 보유만 허용하는 기존의 정책을 고수했다.⁸⁾ 맥아더의 견해는 1949년 3월 22일에 보고된 NSC 8/2 문서와도 일치한다. 본 문서에는 “미래 한국군의 효과적인 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군사, 경제, 기술 지원에 달려있다. 비록 한국정부가 공군을 보유하고자 하지만 미국의 관련 원조는

4)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체놀트 장군이 추천한 란델(Russell E. Randall) 준장을 한국공군의 고문관으로 임명하는 것을 지지해 주기를 원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장군에게 보낸 서한, 1949년 9월 19일.

5) Robert F.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rev. ed.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p. 17.

6)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FRUS), 1949, Volume VII, p. 1009.

7) 조성훈, 『한미군사관계의 형성과 발전』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27.

8) Msg. AFOPRA-A-26 to CINCFE and CG FEAF, 4 Jan. 1950; msg. CX-54607, CINCFE to CofS USAF, 26 Jan. 1950. Futrell,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p. 17.

12대의 연락기 보유로 제한되어 있다.”라는 미국의 입장이 기술되어 있다.⁹⁾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가 “자주국방을 위하여 비행기 국민헌납운동을 전개하자”라는 제의를 하자 “그것도 여론 환기상 좋으나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라며 미국의 군사지원을 통한 항공기 도입을 포기하지 않았다.¹⁰⁾ 그러나 미국 측의 입장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자 9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행기 헌납 운동에 대한 긴급 동의안’을 통과시켜 거국적인 성금 모금운동에 돌입하였다.¹¹⁾ 공군력 발전의 단초를 마련한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10월 10일 대통령령 제254호 “공군본부직제”에 의거 공군을 육군, 해군과 병립하는 군종으로 독립시켰다. 마침내 공군은 1950년 4월 국민성금으로 모은 3억 5천 만 원으로 미국의 민간회사로부터 10대의 캐나다산 항공기 AT-6를 도입하여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¹²⁾

이 시기에 한국공군과 미국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당시 한국군에 대한 고문활동은 주한미군 철수의 보완책으로 등장한 주한미군사고문단(Military Advisors in Korea : KMAG)이 담당하고 있었다. KMAG의 임무는 첫째, 남한의 치안군 지원, 둘째, 한국의 경제능력하에 조직에 대한 조언과 지원, 셋째, 병력에 대한 관리, 넷째, 미국으로부터 지원되는 병기와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감독이었다.¹³⁾ 하지만 KMAG은 한국공군 지원에 소극적이었다. 이는 KMAG에게 지침을 주는 상위 기관인 미 육군이 “한국공군을 위한 자문이나 물자를 제공하는 임무는 부여받지 않았다”¹⁴⁾라며 한국공군

9) FRUS, 1949, Volume VII, p. 973.

10) 『국무회의록』, 1949년 5월 3일, 제45회

11) 『경향신문』, 1949년 10월 2일자.

12) AT-6는 건국기(建國機)로 명명되었으며 성급출처에 따라 개별적인 제호가 붙여졌다. 제1호(교통), 제2호(전남 학도), 제3호(전북 학도), 제4호(전매), 제5호(충남), 제6호(체신), 제7호(국민), 제8호(농민), 제9호(전남), 제10호(경북).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1949-1953』(대전: 공군본부, 1991), p. 57.

13) Staff Memorandum. No. 108. Orientation Newly Assigned Personnel(27 Dec. 1949),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미 고문단 문서』(과천: 국사편찬위원회, 1999), p. 472.

14) Itr, Chief, KMAG, to Korean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Seoul, 7 Oct. 49, P&O File 091 Korea, sec. I, case 18/2. Robert K.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p. 93.

에 대한 공식 지원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KMAG의 일반적인 입장은 한국공군 지원에 소극적이었지만 KMAG은 공군력 강화를 열망하는 한국정부와 공군을 위해 1949년 12월 7일과 31일 2번에 걸쳐 미 정부에 미 공군의 한국공군 지원을 요청했다. 그 내용은 미 공군이 2명의 교관조종사와 8명의 부사관을 파견해 줄 것과 한국공군 지원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었다.¹⁵⁾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KMAG은 제한적이거나 한국공군에 대한 지원활동을 수행하였다. 1949년 12월 9일 KMAG의 주간 참모회의록에서 한국공군 고문(Advisor Korea Air Force)이 몇 가지 지시사항을 하달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회의록에는 첫째, 서울 외부의 활주로 시설을 농부들이 침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둘째, 서울과 대구(大邱), 제주(濟州)를 연결하는 통신망을 개설하며, 셋째, 고문단 요원들이 L-5 항공기를 이용하는 절차가 언급되어 있다.¹⁶⁾ 당시 한국에는 과거 일본군이 사용하던 비행장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황폐화되어 있었고 농민들의 경작활동으로 기존시설도 훼손되어 있었다. KMAG은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고 공군의 기초적인 작전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먼저 활주로를 확보하고 통신망을 개설하여 주요 도시의 비행장을 서로 연결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KMAG이 한국공군에 대한 고문활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육군에 대한 KMAG의 지원은 훈련, 군원집행, 군사교육, 치안유지 등이었는데¹⁷⁾ 공군에 대해서는 이러한 내용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째, 비행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 한국공군은 비록 전투기가 없었지만 훈련기와 연락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떠한

15) EMBTEL 1473, Muccio to Department of State, 7 Dec. 1949. (2) See also SA Rpt. an. 17 and ch. V. below,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p. 94.

16) Staff Memorandum Np. 101, Highlights of Weekly Staff Meeting, (9 Dec. 1949)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미 고문단 문서』, p. 467.

17) 안정애, 「주한미군사고문단에 관한 연구」, 『국제정치외교사논총』 제21집 1호, 1999, p. 225.

교육도 실시되지 않았다. 둘째, 군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KMAG은 한국공군에 전투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미 정부의 방침과 전투지원은 한국육군에 한정한다는 미 육군의 방침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¹⁸⁾ 셋째, 한국공군에 대한 KMAG의 지원체계가 극히 미약했다. 한국공군에게 배당된 고문인원은 오직 3명이었으며¹⁹⁾ 이들은 비행장에 소규모 분견대의 형태로 파견되어 비행장의 관리 상태나 한국공군의 행적 등을 보고했을 뿐이다.

전쟁 발발 이전 KMAG은 한국공군에 대해 전투 및 군사원조에 대한 조언이 없는 극도로 제한된 지원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한국공군과 KMAG의 관계는 미 공군이 6·25전쟁 발발과 동시에 한국공군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부대를 편성하면서 종결되었다.

3. 6·25전쟁 초기 제6146부대의 전투지원

(1) 전쟁의 발발과 바우트원 부대의 창설

6월 25일 북한 공군기가 서울과 김포비행장을 공격하여 미 공군 수송기 1기를 파괴하는 등 남한 상공을 마음대로 휘젓고 다녔다.²⁰⁾ 이날 이승만 대통령은 무초대사에게 긴급히 전투기 지원을 요청하였다. 무초대사는 동경에 있는 극동군사령부와 미 국무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을 발신했다.

18) KMAG의 임무개요를 명시하고 있는 문서에는 “고문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은 미 대사관으로부터 받으나 순수한 군사적 문제에 관한 한 미 육군의 지시를 받으며 미 육군에 직접적으로 보고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Staff Memorandum, No. 108, Orientation Newly Assigned Personnel(27 Dec. 1949), 국사편찬위원회, 『주한 미 고문단 문서』, p. 472.

19)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No. 400-1734, effective 31 Dec. 1949. Sawyer,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p. 50.

20) A. Timothy Warnock, *The USAF in Korea A Chronology 1950-1953*(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0), p. 1.

북한은 제공권의 우위를 확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정부기관과 국방기관에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때늦은 전력의 격차를 완화하여 한국군이 그들이 처한 심각한 위협과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 능동적이고 신속한 행동이 절실하다. 이승만 대통령과 각료들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항공지원 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장래의 전쟁양상은 미국이 적절한 항공원조를 제공하느냐의 여부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²¹⁾

이 전문을 보고받은 맥아더 장군은 스트레이트메이어(George E. Stratemeyer) 극동공군사령관에게 F-51 전투기 10대를 한국공군에 인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극동공군은 한국공군 조종사의 훈련뿐만 아니라 조직과 장비(T/O & E : Table of organization and equipment)에 대한 조언도 제공하게 되었다. 맥아더 장군은 또한 해·공군 장교를 포함한 14명의 장교를 선발하여 한국군을 지원하도록 하였다.²²⁾ 이러한 조치를 통해 미 공군은 한국공군에게 단순히 전투기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 활동과 장비에 대한 조언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 공군의 소규모 지원은 북한공군이 197대의 전투기와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전력 증강보다는 미 공군의 한국공군에 대한 지원의 시발점이라는 차원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10대의 F-51이 한국공군에게 허가되자 한국공군은 6월 26일 별도의 기종 전환훈련 없이 전투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종사 10명을 선발하여 제5공군의 전진기지가 있는 일본 이다즈게(板付)기지로 파견했다.²³⁾ 제5공군은 이들에 대한 전투훈련 담당부대를 긴급히 편성하고 바우트원(Bout-One)이라 명명하였다.²⁴⁾

21) Msg. No. 935. Muccio to State, 25 June 1950. 미 국무부 한국 국내상황 관련문서 I (1950. 1. 7 ~ 6. 27), 『6·25전쟁 자료총서』 39권(서울: 국방군사연구소, 1999), p. 271.

22) William T. Y' Blood 저, 공군본부 역, 『스트레이트메이어 장군의 한국전쟁 일기』(대전: 공군본부, 2005), pp. 47-49.

23) 공군본부, 『공군일지(1948~1953)』(대전: 공군본부, 2001), 1950년 6월 26일: 이들 10명은 이근석 대령, 김영환 중령, 장성환 중령, 김 신 중령, 박희동 대위, 강호륜 대위, 정영진 중위, 이상수 중위, 김성룡 중위, 장동출 중위였다. 조종사 선발기준은 일본 항공학교 15기 '갑' 출신 이상이었다.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대전: 공군본부, 2002), p. 218.

24) Dean E. Hess, *Battle Hymn*(New York : Mcgraw-Hill Book, 1956), pp. 75-76.

일본에서 탄생한 바우트윈 부대는 미 공군의 정식 편제에 등재되지 않은 임시 부대였다. 부대의 지휘는 한국 근무를 자원한 목사 출신의 헤스(Dean. E. Hess) 소령이 맡았고 부대원은 한국 근무를 희망하는 10명의 조종장교와 4명의 지상장교, 100명의 사병으로 구성하였다. 이들은 자신의 부대가 한국공군에 대한 비행 및 정비훈련만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²⁵⁾

일본에 온 10명의 한국인 조종사들은 단 1회의 연습비행만 마치고 시급히 전장으로 돌아갈 것을 희망했다.²⁶⁾ 이들의 요구에 따라 바우트윈 부대는 창설과 동시에 충분한 준비 없이 7월 2일에 대구비행장(K-2)으로 이동하였다. 부대원 중 아무도 대구비행장에서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없었으며 한국에서의 보급지원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바우트윈 부대는 제5공군의 일원으로 구성되었지만 당시 제5공군 중 어느 부대도 한국에 전개해 있지 않았고 미 육군의 지시를 받는 KMAG 역시 원칙적으로는 이들을 지원해 줄 의무가 없었다. 이들은 한국공군과 함께 모든 것을 개척하면서 시작해야만 했다.²⁷⁾

한국공군은 대구비행장으로 이동한 바로 다음날인 7월 3일부터 바로 전투임무에 돌입하였다. 이날의 공격은 남하하는 북한 지상군에 대해 4기 편대가 총 3회에 걸쳐 임무를 수행하였다. 박희동 대위가 지휘한 편대는 시흥지구와 영등포에서 연료집적소와 차량 각 1개를 파괴하였고 이근석 대령이 지휘한 편대는 영등포, 노량진 일대에서 탱크 2대와 탄약집적소 1개를 파괴하고 병력 30여 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²⁸⁾

하지만 부족한 훈련은 곧 사고로 이어졌다. 7월 4일 편대를 이끌고 전투를 지휘했던 이근석 대령이 전사한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중 미군기 20여대를 격추시켰던 베테랑 이근석 대령이 임무 2일 만에 전사한 것은 한국공

25) Ibid., p. 76.

26) 김정렬 예비역 중장 증언,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대전: 공군본부, 2002), p. 32.

27) 대구비행장에 미 제822항공공병부대가 투입된 것은 이로부터 16일 뒤인 1950년 7월 18일이었다. John G. Westover, *Combat Support in Korea*(Washington D.C.: Combat Forces Press, 1955), p. 39.

28) 공군본부, 『전투요보(1950~1951)』(대전: 공군본부, 2002), 1950년 7월 3일(No. 1).

군에게 큰 충격이었다. 공군참모총장 김정렬 장군은 한 번도 F-51로 사격을 해보지 못한 조종사들에게 전차공격을 명령했던 자신을 탓했다.²⁹⁾ 급박한 전황하에서 조종사들은 왕성한 공격정신을 가지고 전투에 돌입하였지만 조종기술은 정신력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7월 5일 이승만 대통령은 경북도청 도지사관저에 9명의 조종사들을 불러 위로하고 훈련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³⁰⁾

대통령의 훈련 강화 방침에 따라 김정렬 장군은 헤스 소령에게 미군 조종사가 편대장을 맡고 한국군 조종사는 편대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³¹⁾ 미 공군 요원이 태극마크가 달린 한국공군기에 탑승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하지만 KMAG으로부터 미 지상군에 대한 근접지원요청이 쇄도하는 상황이었기에 헤스 소령은 제안을 받아들였다.³²⁾

7월 14일 대전이 위태롭고 육군본부가 대구로 후퇴하는 등 전황이 더욱 악화되는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작전 지휘권을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다.³³⁾ 이 시점부터 한미 연합공군은 공식적으로 합동 출격하여 7월 26일까지 영덕(盈德)과 단양(丹陽), 대전(大田) 등지에서 탱크 5대와 차량 16대를 파괴하고 병력 130명을 사살하는 등 전과를 확대하기 시작했다.³⁴⁾

그러나 이러한 한미 공군의 전과확대와 관계없이 한국공군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시기 대구비행장에 파견된 새로운 지휘관 로우(Curtis Lowe) 중령이 지휘권 이양에 따른 부대재편의 일환으로 바우트윈 부대를 제6002전투폭격비행대대로 개편하면서 한국공군의 F-51 9대

29) 김정렬, 「6·25당시의 기록-미완성 원고」, 『김정렬 회고록』(서울: 을유문화사, 1993), pp. 472-473.

30)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1949-1953』, p. 123.

31) 위의 책, p. 123.

32) Hess, *Battle Hymn*, pp. 85-86.

33) 미 국무부 한국 국내상황 관련문서 V : 6·25전쟁 자료총서 43권, p. 340.

34) 공군본부, 『전투요보(1950~1951)』, 1950년 7월 16일(No. 19)부터 26일(No. 28)까지

전부를 미 공군 소유로 회수한 것이다.³⁵⁾

당시 미약했던 한국공군은 유엔군에 편제되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대조정 혼란 속에서 독립성이 약화되어 있었다. 한국공군이 소유하고 있었던 연락기의 80%는 육군 군단에 배속되어 연락 및 전단 살포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고³⁶⁾ 한국공군의 상징인 태극마크는 동양적 특색으로 인해 북한군의 표식으로 오인 받아 유엔군 항공기의 공격을 받는 일도 일어나고 있었다.³⁷⁾

부대존립의 위기 속에서 바우트윈 부대 지휘관 헤스 소령은 팀버레이크(Edward J. Timberlake) 제5공군 부사령관을 찾아갔다. 그는 한국공군의 존속을 열망하는 김정렬 총장과 한국공군의 의지를 전하면서 전투기들을 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F-51 6대가 한국공군에게 환수되었고 바우트윈 부대에게 별도의 훈련 및 전투임무가 허용되었다.³⁸⁾ 이에 따라 바우트윈 부대는 편제표에만 존재하던 6146의 명칭을 부여받아 1950년 7월 27일에 제6146공군기지부대(6146th Air Base Unit/제6146부대)로 재창설되었다.

이 시기 유엔군의 압도적인 공중우세 속에서도 적 지상군은 하동(河東)을 점령하고 영동(永同)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있었다. 제5공군과 극동공군은 지상군과의 협조를 강화하기 위해 대구비행장에 전진기지를 설치하였고 제6132전술항공통제전대도 전술항공통제본부를 설치하면서 대구비행장은 포화상태가 되었다. 한국공군은 새로 조직된 부대를 재편성하고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7월 28일에 진해기지(K-10)로 향했다.³⁹⁾ 제6146부대도 부대의 잔류를 희망하는 바우트윈 부대 출신의 장교 1명과 사병 30명을 동반하고 한국공군을 따라 이동했다.

35) Hess, *Battle Hymn*, pp. 107-108.

36) 한국공군 약사(1950년 9월 20일), 영문역사철(英文歷史綴), 공군본부, 『원산작전 기본계획안 외』(대전: 공군본부, 2004)

37) Hess, *Battle Hymn*, p. 107.

38) *Ibid.*, p. 110.

39) 비행단작명 제1호, "비행단은 병력을 대구기지에서부터 진해기지로 이동하려 함." 1950년 7월 28일. 공군본부, 『작전명령(1950~1953)』(대전: 공군본부, 2002).

(2)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의 연합작전과 한국공군의 성장

바우트윈 부대는 제6146부대로 재창설되면서 한국공군에 대한 운영지원과 함께 비행기지관리를 수행하게 되었다.⁴⁰⁾ 하지만 제6146부대가 정식 고문단으로 인정받은 것은 아니었다. 자원자들로 구성되었던 만큼 한국공군을 돕는다는 부대원들의 의지는 확고했지만 미 정부에 군원을 요구하거나 K MAG에 대표를 보내는 등의 정식 고문단 활동은 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제6146부대의 한국공군 지원은 물적 지원보다는 전투지도와 교육에 집중된 비물질적 지원이 주가 된다.

제6146부대는 정식 고문단은 아니었지만 제5공군이 인정한 한국공군 지원부대로서 한국공군 훈련체계의 기틀을 잡아갔다. 훈련은 조종사들을 대상으로 한 F-51 비행훈련, 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지상훈련, 사병을 대상으로 한 이론 및 실무교육으로 구분되었다.⁴¹⁾ 이들은 훈련에 앞서 미 공군의 조직 및 역사에 대해 강의하였고 생도들에 대해서는 랜돌프기지(Randolph Air Base, Texas)⁴²⁾의 훈련프로그램과 유사한 과정으로 훈련을 계획하여 체계를 갖춘 훈련을 실시하고자 노력했다.⁴³⁾

8월에 접어들어 전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8월 5일 낙동강에 방어선을 구축한 유엔군에 대한 북한군의 공세가 시작되었고 주요 고지에서는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북한군이 대구를 점령하기 위해 총공격을 개시한 8월 15일 한국공군 조종사 2명이 1명의 제6146부대 장교와 함께 전투임무에 투입되기 시작했다.⁴⁴⁾ 편대장은 미 공군 조종사였으며 한국공군 조종사는 편

40) "A History of the 6146th Air Base Unit, Korea," Aug. 1950, Narrative, No. K0140-A. The United States Air Force Historical Research Agency, p. 1.

41) Ibid., pp. 1-2.

42) 랜돌프 공군기지는 1930년대 이후 모든 기본 비행훈련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는 기지였다. 본 기지에서의 훈련과정은 12주였다. Bernard C. Nalty, *Winged Shield, Winged Sword A History of the United Air Force Volume I 1907-1950*(Washington, D.C. : Air Force History and Museums Program, 1997), p. 111.

43) "6146 ABU Korea," Aug. 1950, Narrative, No. K0140-A, p. 3.

44) 김일성은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 제81호(1950. 8. 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낙동강선 방어작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 43; 공군본부, 『전투요보(1950~1951)』, 1950년 8월 15일(No. 29).

대원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작전은 낙동강 방어선 후방의 적 병력과 포진지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하동, 광양(光陽), 함양(咸陽) 일대의 적 제6사단과 제7사단을 공격했으며 8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영동, 옥천(沃川) 등 경부간선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였다.⁴⁵⁾ 또한 이 지역의 미 제24사단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미 해군 F-4U 편대와 미 공군 F-80 편대에 대한 통제기 역할을 수행하여 한미 육·해·공군의 연합 작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⁴⁶⁾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의 연합작전이 한창이던 8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은 진해기지를 방문하여 소죽도(小竹島)에서 화력시범을 시찰하였다. 대통령은 이 가운데 한국공군의 확장과 훈련된 공군요원의 확충에 대해서 특히 관심을 보였다.⁴⁷⁾

하지만 이 대통령과 한국공군의 열망은 가까운 시일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급변하는 전세와 전선의 이동, 제5공군의 제6146부대에 대한 불충분한 보급지원 때문이었다. 8월의 전투비행 회수는 109회에 달했지만⁴⁸⁾ 9월 7일 이후 탄약과 폭탄의 재고량이 소진되어 전투임무 수행과 실전적 훈련시행이 불가능해졌다.⁴⁹⁾ 기지에 함께 주둔하고 있던 미 해병대 제6관측대대(VM06)도 진해를 떠나 인천으로 이동하여 기지는 점차 활기를 잃어갔다.

9월 15일 미 제10군단의 인천상륙작전 성공은 부대의 기능이 저하되었던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부여했다. 김정렬 총장과 헤스 소령은 지속적인 전투임무 수행을 통한 한국공군의 존재가치 부여를 위해 부대를 전선 인접지역으로 이동할 것을 계획했고 제5공군 사령부에 부대이동을 요청했다.⁵⁰⁾ 이 시점부터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는 1952년 4월까지 9

45) 위의 책, 1950년 8월 17일(No. 32)부터 21일(No. 38)까지.

46) "6146 ABU Korea," Aug. 1950, Short Brief of Missions Flown, No. K0140-A.

47) Ibid., Narrative, No. K0140-A, p. 3.

48) Ibid., Sorties, No. K0140-A.

49) "6146 ABU Korea," Sep. 1950, Sorties, No. K0140-A.

50) Ibid., Sep. 1950, Narrative, No. K0140-A, p. 2.

개월 동안 총 6회에 걸쳐 부대를 이동하면서 전투와 훈련을 병행하게 된다.⁵¹⁾

9월 24일 한국공군 주력과 제6146부대가 상륙함 단양(丹陽)호를 타고 도착한 여의도비행장에 남아있는 시설은 불에 탄 건물과 오래된 격납고, 그리고 연락기용의 짧은 활주로가 전부였다.⁵²⁾ 기지를 살펴본 김정렬 총장과 헤스 소령은 이곳에서 과거 일본 전투기가 이착륙하던 활주로의 흔적을 발견하였다. 남은 문제는 복구에 동원할 인력과 도구였는데 부대는 인근 주민 중 자원자를 모집하여 인력문제를 해결하였고 도구는 삽과 같은 손에 잡히는 도구들과 드럼통 등을 활용하였다. 부대원 전원과 주민 1,000여 명은 1주일 만에 활주로를 복구했다.⁵³⁾

10월 1일 한국군 3사단과 수도사단이 38선을 돌파하는 가운데 한국공군은 제6146부대의 조종사들보다 먼저 전투임무를 개시했다. 이들은 후퇴하고 있는 평양(平壤) 일대의 북한군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신의주(新義州), 강계(江界)지역의 교량 및 물자집적소에 대한 폭격임무를 수행하였다. 13일까지 수행된 임무에서 교량 7개와 조차장 3개, 43개의 물자집적소를 파괴하는 등 일련의 전과를 얻었다.⁵⁴⁾

하지만 한국공군은 이러한 작전성가에 만족할 수 없었다. F-51을 투입한 7월 3일 이후 3개월 동안 작전이 이루어진 날은 42일에 불과했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이 부대정비와 부대이동에 소요되었다.⁵⁵⁾ 조종사들이 전투능력 숙달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발전 기회가 그만큼 적다는 것을 의미했다.

평양점령이 눈앞에 다가온 10월 17일 미군의 전진한계선은 압록강 남방 60km를 연하는 선까지 확장되었고 유엔군의 북진은 계속되었다.⁵⁶⁾ 지상

51) 1950년 7월 27일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가 대구에서 진해로 이동하면서 진해기지를 모기지(母基地)로 하고 김해기지(K-1)를 훈련기지로 하여 2개의 기지를 이용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대이동 횟수에서 김해기지 이동은 제외하였다.

52) "6146 ABU Korea," Oct. 1950, Narrative, No. K0140-A, p. 1.

53)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1949-1953』, p. 146; Hess, *Battle Hymn*, p. 145.

54) 공군본부, 『전투요보 (1950~1951)』, 1950년 10월 1일(No. 70)부터 1950년 10월 13일(No. 78)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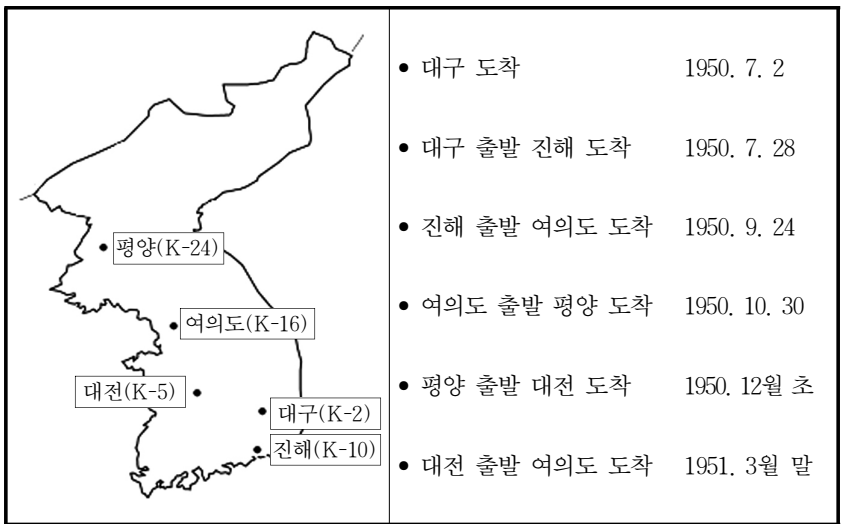
55) 위의 책, 1950년 7월 3일(No. 1)부터 1950년 10월 13일(No. 78)까지.

5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6 인천상륙작전과 반격작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9), p. 441.

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이 주 임무였던 공군은 보다 효율적인 작전지원을 위해 평양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10월 23일 제6146부대의 잭슨(Melvin T. Jackson) 대위가 인솔하는 선발부대가 여의도비행장을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는 평양의 미림(美林)비행장(K-24)으로 이동하였다.⁵⁷⁾

전선과 함께 이동하며 최전방의 지상군을 지원하고자 했던 한국공군의 의도는 중국군의 참전으로 차질을 빚었다. 10월 25일 유엔군은 예상치 못했던 대규모 중국군과의 교전에 들어갔다.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유엔군을 상대하기 위해 중국군은 야간에만 이동하고 있었는데 야간작전훈련을 받지 못한 한국공군은 오폭의 위험 때문에 야간작전을 실시할 수 없었다. 평양에서의 전투임무는 불가피하게 제6146부대의 조종사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⁵⁸⁾

〈그림 1〉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의 이동현황(1950년부터 1951년까지)



57) "6146 ABU Korea," Oct. 1950, Narrative, No. K0140-A, p. 4.

58)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1949-1953』, p. 151, p. 176. 당시 한국공군에게는 주간 항공훈련도 실시되지 않고 있었고 오직 편대비행과 지상공격 훈련만 실시되고 있었다.

유엔군의 철수로 전선이 남쪽으로 이동하게 되자 부대는 5번째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들이 10월 초에 개척했던 여의도비행장에는 이미 많은 수의 유엔군 항공부대가 결집하여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좀 더 후방에 있는 대전비행장(K-5)으로 이동하게 되었다.⁵⁹⁾ 12월 6일 적 병력이 비행장에 도달하기 12시간 전에 부대의 마지막 인원과 물자를 실은 트럭 20대가 미림비행장을 빠져나옴으로써 평양에서의 46일은 종료되었다.⁶⁰⁾

이 시기 한국공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과거와 같은 부대운영은 조종사들의 기량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전투부대와 훈련부대를 분리한 것이다.⁶¹⁾ 한국공군은 가용한 10대의 F-51 중 4대를 제6146부대와 함께 대전비행장으로 이동시켜 전투임무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6대는 제주도 모슬포기지(K-40)로 이동하여 한국 조종사들의 전투훈련에 사용하도록 조치했다.⁶²⁾

12월 29일 대전에서 미 공군 제6146부대원들이 한국공군의 F-51에 탑승하여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한국공군 전 조종사를 대상으로 비행훈련이 시작되었다. 제6146부대의 크레이그웰(Ernest Craigwell Jr.) 중위와 미 공군 사병 7명이 제주도로 동행하여 훈련을 지원하였으며 제6146부대의 모든 잉여물자도 제주도로 운송했다.⁶³⁾ 한국공군이 훈련에 집중함에 따라 제6146부대원만으로 이루어진 대전기지의 전투임무성과는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한국공군은 1951년 3월 14일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여 여의도비행장의 작전여건을 조성할 때까지 훈련에 전념했다.

UN 지상군의 반격으로 전세가 역전되자 대전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제6146부대는 1951년 3월 22일에 여의도비행장으로 이동하기로 결정했다.⁶⁴⁾ 제주도에서 전투훈련에 임했던 한국공군도 4개월의 짧은 기간

59) 공본작명 제55호, “군은 비행단을 이동시켜 차기작전에 대비하려 함.” 1950년 11월 30일. 공군본부, 『작전명령(1950~1953)』.

60) “6146 ABU Korea,” Dec. 1950, Narrative, No. K0140-A, p. 1.

61)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1949-1953』, p. 163.

62) “6146 ABU Korea,” Jan. 1951, Narrative, No. K0326, p. 1.

63) “6146 ABU Korea,” Dec. 1950, Narrative, No. K0140-A, p. 2.

64) “6146 ABU Korea,” Mar. 1951, Narrative, No. K0326, p. 3.

이었지만 편대비행훈련을 마친 4명의 전투조종사를 여의도비행장에 파견하여 전투에 참가했다.⁶⁵⁾

한국공군이 다시 전투에 참여한 3월 말에 UN군은 38선을 회복하고 다시 전선을 북쪽으로 확장시키고 있었다. 한국공군 조종사 4명은 4월 1일부터 제6146부대 조종사 3명과 함께 북진하는 UN군을 지원하기 위해 전투출격을 실시하였다. 3개월 만에 여의도기지에서 다시 모인 한미 연합공군은 4월 한 달 동안 총 182회의 전투출격을 실시하여 지난 3개월 동안 제6146부대원들이 실시한 전투임무 횟수 102회를 크게 초월하였다. 이들은 차량 180대를 파괴하고 적병 75명을 사살하는 등 다수의 전과를 올렸다.⁶⁶⁾

하지만 이 시기 한국공군은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4월 16일 제6146부대원 2명과 함께 편대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던 중 최종봉 대위가 이천(伊川) 북쪽에서 적 보급품 집적소를 공격한 후 귀환하지 못했다. 4월 21일에는 이세영 대위가 같은 지역을 공격하던 중 대공포에 격추되어 전사했다.⁶⁷⁾ 중국군의 참전 이후 5개월 동안 본격적인 전투를 수행하지 못한 한국공군에게 있어서 UN군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준비하는 중국군을 상대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참담한 결과 앞에서 한국공군 수뇌부는 조종사들이 보다 체계적인 전투 훈련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감했다. 전투능력을 인정받아 부대를 증강할 것인가? 아니면 부대의 기반과 능력을 든든히 한 후에 전투능력을 인정받을 것인가? 어느 방안이 적절한지를 두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제6146부대장 헤스 중령⁶⁸⁾과 김정렬 총장의 의견이 엇갈렸다.

헤스 중령은 전투를 통해 한국공군 요원들을 훈련시키면서 맡은 임무를

65) 당시 제주도에서의 한국공군 전투조종사들의 훈련내용은 공중조작 5시간, 편대비행 1시간, 대지공격 2시간 후 전투훈련 투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1952년 초 정규 비행교육 과정이 기본훈련 60시간, 중급훈련 60시간, 전투훈련 60시간으로 구성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속성교육이었음을 알 수 있다.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1949-1953』, p. 165; 공군참모총장, 『대한민국공군 3개년 계획안』, 1951, p. 6.

66) "6146 ABU Korea," Apr. 1951, Claims, No. K0326.

67) 공군본부, 『전투요보(1950~1951)』, 1951년 4월 16일(No. 26), 21일(No. 30).

68) 헤스는 1950년 10월에 중령으로 진급하였다.

달성하려 하였다. 그는 한국공군이 지금처럼 미 공군 조종사들의 주도하에 제5공군의 작전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중국군의 참전으로 더욱 강해진 적 지상군의 저항 앞에서 실전을 통해 배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정렬 총장은 한국공군이 지금처럼 자주성 없이 편대원으로서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분대장, 편대장의 능력을 갖추어서 전투서열상 제6146부대가 아닌 한국공군의 이름으로 자주적인 임무를 수행하고자 했다.⁶⁹⁾

이 문제의 논의과정에서 최종봉, 이세영 대위가 투입된 지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전사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김정렬 총장은 먼저 부대능력을 다지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김정렬 총장은 1951년 5월 15일 패트리지(Earl E. Partridge) 중장에게 '한국공군 전력확장에 대한 제의'라는 서신을 보내 "한국공군은 5월 31일부로 제6146부대와외의 합동출격을 중지하겠다"라고 통보하였다.⁷⁰⁾ 6월 15일 공군본부는 여의도기지의 101기지전대와 11비행중대에 6월 30일까지 사천비행장(K-4)에 집결하라는 명령을 하달하였고⁷¹⁾ 동시에 제5공군도 제6146부대를 사천비행장으로 이동시켰다.⁷²⁾ 이로써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는 새로운 기지에서 변화된 관계로 출발하게 되었다.

69) 당시 한국공군은 6146부대의 이름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장지량 예비역 중장 증언, 공군본부, 『6·25전쟁 증언록』, pp. 385-386; 헤스는 한국공군 성장의 방법적 측면에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었지만 헤스의 공적은 한국인들에게 큰 존경과 감사를 받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1년 4월 제6146부대에게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여하였으며 헤스 개인에게는 은성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또한 헤스는 홍남철수 당시 전쟁고아 9백여 명을 수송기 17대를 동원하여 제주도에 수송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여 1961년 5월 5일에 외국인 최초로 소파상(小波賞)을 수상하였다. "6146 ABU Korea," Apr. 1951, Narrative, No. K0140-A, p. 1; 『동아일보』, 1961년 5월 4일자

70)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1949-1953』, p. 171. 하지만 김정렬 총장의 이러한 행동은 제6146부대와외의 전투출격을 중지하겠다는 것이었고 제6146부대와외의 작전관계를 끊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71) 공군작명 제31호, "군은 일부병력을 후방기지에 이동하여 차기작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려함," 1951년 6월 12일. 공군본부, 『작전명령(1950~1953)』.

72) "6146 ABU Korea," June 1951, Narrative, No. K0326, p. 2.

4. 대한민국공군 3개년 계획과 제6146공군고문단의 창설

(1) 한국공군의 작전독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사천비행장으로 이동한 한국공군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전까지는 신속한 전투임무 투입을 우선시하여 전투와 훈련을 합한 횟수가 월평균 62회를 넘지 못했으나 사천으로 이동한 1951년 7월 한 달에만 317회의 훈련임무 비행을 실시했다.⁷³⁾

〈표 1〉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의 비행소티(1950. 8~1951. 7)

비행년월	비행 소티	비행년월	비행 소티
1950. 8	109회	1951. 2	65회
1950. 9	21회	1951. 3	없음
1950. 10	54회	1951. 4	182회
1950. 11	81회	1951. 5	104회
1950. 12	39회	1951. 6	없음
1951. 1	37회	1951. 7	T-6 205회, F-51D 112회

* 출처: "6146 ABU Korea," Aug. 1950-July 1951, No. K0140-A, No. K0326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

훈련 형태도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7월 30일부터 제6146부대의 라그로(Lewis LaGro) 중위의 감독하에 미 공군의 비행교육체계와 유사한 단계식 비행교육을 실시했다. 예전의 비행교육은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원들 간의 부분적인 협조관계하에 F-51에 대한 기종전환 훈련 위주로 진행되었고 편대구성 및 지상사격술만 배우면 일선에 배치되었다.⁷⁴⁾ 개선된

73) "6146 ABU Korea," July 1951, Training Sorties Flown, No. K0326.

74) "6146 ABU Korea," July 1951, Narrative, No. K0326, p. 3.

훈련은 이러한 제한적인 훈련에서 탈피하였는데 특히 8월 1일부터는 편대원이 아니라 편대장으로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항법비행훈련이 최초로 실시되었다.⁷⁵⁾

이 시점에서 한국공군은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다. 한국공군이 당당하게 자신의 이름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도적인 임무수행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했다. 한국공군이 모색한 방법은 인근 지리산 지역의 게릴라에 대한 소탕작전 지원이었다. 지리산은 한국공군이 주둔하고 있는 사천과 인접하여 항법과 보급이 수월했으며 대공포의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게릴라에 대한 공격은 전력을 보전하면서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한국공군의 취지에 부합한 임무였다.⁷⁶⁾ 당시 지리산에는 유엔군의 인천상륙으로 후방에 고립되어 있는 1개 사단규모의 게릴라가 활동하고 있었다. 지리산 지구의 전투경찰은 부족한 화력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으며 한국경찰에 대한 미 공군의 근접항공지원도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한국공군은 1951년 8월 17일부터 이 지역에 대한 작전권을 넘겨받았다.

한국공군은 지리산에서 작전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작전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제5공군에 작전준비훈련(ORT: Operational Readiness Training) 검열을 요청했다.⁷⁷⁾ 8월 27일 제5공군으로부터 전술검열관 아이잭슨(Clayton M. Isaacson) 중령을 비롯한 검열관들이 도착하여 작전, 정보, 인사, 정비, 무장, 보급, 통신 분야별로 작전검열을 시작했다. 한국공군은 검열의 일환으로 9월 1일까지 지리산 지역의 경찰을 지원하는 게릴라 공격임무와 더불어 황해도 해주(海州) 북쪽 지역의 교량에 대한 항공차단 임무에 총 23회 출격하여 게릴라 696명을 사살하고 철교 3개를 절단하는 전과를 올렸다.⁷⁸⁾ 마지막 임무인 해주의 교량폭파임무에는 아이잭슨 중령

75) 공군본부, 『공군사 제1집 증보판 1949-1953』, p. 176.

76) 장지량 예비역 중장 증언, 공군본부, 『6·25전쟁 증인록』, p. 386.

77) "6146 ABU Korea," Aug. 1951, Narrative, No. K0326, p. 2.

78) From Choi Chi Whan, Chief Uniform Section(G-2) National Police Headquarters to CG FAF, "Air Support on Police Operations."(13 Sep. 1951). 영문서한철(英文書翰綴), 공군본부, 『원산작전 기본계획안 외』

이 동승하여 편대집합, 항법과 공격요령, 기지귀환과 임무 후 보고까지 작전 전 과정을 검열하였다. 검열을 마친 제5공군 사령부는 9월 7일 검열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보했다.

사천에 있는 한국공군에 대한 검열 결과 전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필수장비가 일부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검열단원들은 하루 빨리 전투임무에 투입되고자 열망하는 한국공군의 뜨거운 열정을 목격했습니다. 전선에서의 전투임무 지원은 195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제5공군 사령부는 한국공군의 전투와 훈련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할 것입니다.⁷⁹⁾

검열을 통과하자 한국공군은 미리 선정해 둔 강릉비행장(K-18)으로 신속히 이동했다. 9월 18일 제1제대의 도착을 시작으로 9월 28일에 F-51 12기가 강릉비행장에 도착하여 부대이동을 완료했다. 이렇게 신속한 전개가 가능했던 것은 한국공군 지휘부가 검열 전부터 미리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이동 및 작전계획을 준비했기 때문이다. 한국공군은 사천에서 훈련비행에 전념하기 시작한 시점에 그들이 독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방의 부대와 작전지역을 물색했다. 그 결과 한국육군이 배치되어 있는 동부전선의 유일한 작전기지인 강릉비행장이 선정되었고 1951년 7월 20일부로 강릉기지 작전계획을 작성하여 제6146부대와 제5공군 사령부에 보내 사전 동의를 얻고자 노력했다.⁸⁰⁾ 이 계획은 '기지시설'부터 '작전'까지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비행장 작전환경 조성부터 세부 전투임무 분장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었다.⁸¹⁾

79) From CG 5th Air Force Korea to Chief of Staff ROKAF Taegu Korea,(7 Sep. 1951). 위의 책

80) From Shin Sang Chul, Colonel, ROKAF Director of Operations to The Commanding Officer 6146th Air Base Unit, Fifth Air Force(1 Aug. 1951). 위의 책

81) ROKAF Hq, "Basic Programs for the Preparation of Combat Missions Republic of Korea Air Force at K-18 Air Base,"(20 July 1951). 위의 책

〈표 2〉 강릉기지 전투임무 준비계획 구성(1951. 7. 20)

구분	1단계 : 기지시설	2단계 : 전투준비	3단계 : 기지이전	4단계 : 작전
준비항목	1. 비행장 정리 2. 숙영지 건설 3. 보조시설 건설	1. 작전지도 2. 통신장비 3. 항공정찰장비 4. 공지작전 통신망 5. 정보부서 신설 6. 전투부서와 협조부서 분리 7. 임무지역 선정 8. 대공방어시설 9. 보급체계 구성	1. 기지이전 준비 2. 선발대 이동 3. 본대 이동	1. 정보수집 방법 2. 작전명령 수신 3. 임무지령 수신 4. 공지합동회의 5. 대공방어 6. 지상방어 7. 연락장교 8. 구조작전 계획

전투부대를 강릉으로 전진시키는 준비를 이행 중이던 9월 22일 이승만 대통령은 제5공군 부사령관 퍼거슨(James Ferguson) 준장과 함께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사천비행장을 방문했다.⁸²⁾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우리는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할 줄 알아야 하는 동시에 남보다 더 잘해야 한다”⁸³⁾라며 한국공군의 작전 독립 노력을 치하했다.⁸⁴⁾

강릉 이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임무와 차별되는 면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부대의 임무를 한국공군의 이름으로 수행했다. 둘째, 전투 편대장 임무를 한국공군이 수행했다. 이로써 제6146부대원은 감독임무에 충실하게 되었고 한국공군은 미 해병으로부터 정보 브리핑을 받는 등 독립부대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⁸⁵⁾

(2) 3개년 계획과 제6146부대의 고문단 재창설

강릉에서는 근접항공지원작전과 항공차단작전이, 사천에서는 훈련비행이

82) “6146 ABU Korea,” Sep. 1951, Narrative, No. K0326, p. 2.

83) 공보처, 『대통령이승만담화집』(서울: 공보처, 1953), 1951년 9월 23일 연설내용.

84) 당시 한국공군의 단독작전이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1952년 94회 국무회의에도 보고되었다. 당시 한국공군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국무회의록』, 1952년 11월 4일, 제94회.

85) “6146 ABU Korea,” Oct. 1951, Narrative, No. K0326, p. 1.

강도 높게 진행되어 10월 한 달 동안에만 186회의 전투출격이 이루어졌고 훈련비행이 986회까지 증가되었다.⁸⁶⁾ 전쟁발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11월에는 영어회화가 가능한 장교 7명을 평택의 제6147전술항공통제전대에 파견하여 전술항공통제반과 공중전방항공통제요원을 육성하기 시작했다.⁸⁷⁾ 1952년 1월 11일에는 김두만 소령이 한국공군 최초로 100회 전투출격을 달성했고⁸⁸⁾ 1월 15일에는 평양 근교의 승호리 철교를 성공적으로 절단하여 유엔군의 후방차단임무에 기여하였다.⁸⁹⁾

그러나 한국공군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전투능력은 향상되었지만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전쟁 초기 전멸의 지경에 이르렀던 북한공군은 1950년 후반기부터 소련의 도움으로 Yak-9 24대로 구성된 비행연대를 편성하였고 이들 전투기로 1950년 11월에 2대의 B-29를 격추하여 전투능력을 과시하였으며⁹⁰⁾ MiG-15를 보유하는 등 전력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

당시 북한공군이 MiG-15를 보유했던 사실은 한국공군에 있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MiG-15는 소련이 우려했던 미국의 핵폭격전력에 맞설 수 있는 최신예 전투기였다.⁹¹⁾ 이 항공기의 출현으로 1951년 초반 미 공군은 B-29의 주간폭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제트 전투기를 보유하지 않은 한국공군에게 노력만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간 북한공군은 큰 위협이었다. 둘째, 북한공군이 한국공군과 달리 자신을 지원하는 우방국으로부터 최신예기를 포함한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86) Ibid., Combat Sorties Flown, Training Sorties Flown.

87) 본 교육은 한국군 1군단에 대한 전술항공통제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규정된 교육절차를 모두 이수한 뒤 복귀했다. From 6153 Air Base Squadron Adjutant officer to Commanding Officer Korean Air Base Wing(16 Nov. 1951). 영문서한철, 공군본부, 『원산작전 기본계획안 외』

88) 공군본부, 『공군일지(1948~1953)』, 1952년 1월 11일

89) 공군본부, 『전투요보(1952)』(논산: 공군본부, 2002), 1952년 1월 15일.

90) 자하로프가 스탈린에게 보낸 전문(1950년 11월 2일).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보관소 문서군 45, 목록 1, 문서철 335, pp. 71-72, 원본.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1953년』, (과천: 국사편찬위원회, 2005), p. 111, pp. 292-294.

91) A. 보론쵸프, 「소련인들이 기억하는 6·25전쟁」, 『동아시아 전쟁사 최근연구 논문선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 pp. 398-399.

있다는 사실이었다. 한국공군에게는 전장에서 전투와 교육을 병행하는 제 6146부대가 전부였던 반면, 소련과 중국은 북한공군 조종사들을 자국 영토에서 양성하고 있었다.⁹²⁾ 한국공군에게 필요한 물자는 제6146부대가 극동 공군으로부터 획득하여 제공하였지만 작전과 훈련에 필요한 물자에 한정되어 있었다. 한국공군이 독립부대가 된 것은 큰 발전이었다. 하지만 북한과의 전력격차는 반드시 극복해야만 했다. 공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1년 11월부터 보도기관을 통해 공군의 활약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⁹³⁾

〈표 3〉 한국공군과 북한공군 전력비교

한국공군 전력(1951년 9월 20일 기준)

항 공 기		조 종 사	
F-51	18대	F-51	29명
T-6	6대	T-6	18명
L형 연락기	21대	L형 연락기	205명
	(총 45대)		(총 252명)

북한공군 전력(1951년 8월 31일 기준)

항 공 기		조 종 사	
MiG-15	20대		
LA-11	90대	A급(MiG-15)	30명
LA-9	50대	B급(YAK)	350명
YAK-11	30대	C급(훈련기)	320명
YAK-9	50대		(총 700명)
IL-10	120대		
	(총 360대)		

* 출처: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 한국공군 역사, 영문역사철, 공군본부, 『원산작전 기본계획안 외』

92)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라주바에프의 6·25전쟁 보고서 2』(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 136.

93) 공군본부, 『공군사 : 1953-1957』(대전: 공군본부, 1964), p. 87.

공군이 항공전력의 확장의 논리와 정당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수행하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군원이라는 획득방법을 제시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외신 기자와의 회견에서 “장차 북한과 같은 공군력을 가진 국가가 침략해 온다면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미국에 대한 원조요청에 대해 지상군만 아니라 공군과 해군의 원조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답하여 한국 공군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희망하는 뜻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 “만약 미국 장교들이 우리들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우리의 해·공군을 잘 훈련시켜서 짧은 시일 내에 능히 적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⁹⁴⁾라고 덧붙여 해·공군 군사원조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피력했다. 당시 한국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볼 때 대통령이 제시한 미국의 원조라는 방법은 공군 전력증강의 유일한 방책이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법과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 부응하여 공군은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에 착수했다. 그 결실은 ‘대한민국 공군 3개년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당시 한국육군이 갖추고 있는 10개 사단을 지원할 수 있는 10개의 전투비행대대를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1952년 4월 1일부터 시작하여 1955년 3월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개년 계획의 최종 목표는 첫째, 작전부대는 F-84급 제트전투기를 매년 100대씩 도입하여 총 300대, 4개 사단 규모로 건설한다. 둘째, 육군 10개 사단의 제일선 작전에 필요한 직접지원부대로 1개의 지상지휘통제전대와 1개의 공중지휘통제전대를 구성한다. 셋째, 간접지원부대로 1개의 공중수송대대 C-47급 수송기 20대와 1개의 항공통신단, 기상전대 그리고 시설부대를 설치한다. 그 외에 보급정비기관, 교육기관, 공군병원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며 목표로 하는 병력 규모는 총 23,700명이었다.⁹⁵⁾

3개년 계획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증강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은 공군고

94) 정전문제에 대한 이대통령과 외신기자간의 문답, 『한국전란 2년지』(서울: 국방부, 1955), pp. 110-115.

95) 공군참모총장, 『대한민국공군 3개년 계획안』, 1951, pp. 11-20.

문단의 창설이었다. 기존의 고문단 역할을 수행하던 제6146부대는 전투지원을 주 임무로 하여 군원획득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단지 문서작성에 도움을 주는 등 행정편의를 보여주는 것이 한계였다. 한국공군은 공군고문단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고문단 창설을 누차 요청하였으나 제6146부대 40여 명이 일선 작전 위주로 지원하고 있을 뿐이며 권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한국공군은 교육 훈련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애로가 되고 있다. 공군의 성쇠는 고문단의 유무에 달려 있는 것이니 우리는 미국 정부가 정식으로 승인하는 고문단이 조속히 설치되기를 고대한다.⁹⁶⁾

이러한 당위성과 더불어 고문단의 임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첫째, 대한 군사원조비의 할당에 참여하여 최소한 전체 예산의 삼분의 일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한국공군의 대변자가 될 것, 둘째, 미국 본토 및 타 지역에서 수송되는 기재, 물자를 수령하고 한국공군에 인도하는 업무, 셋째, 한국공군이 적절히 군사 원조 물자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이었다.⁹⁷⁾ 한국공군은 군원을 획득하는 문제에 대해서 KMAG과 동등한 권한을 갖춘 고문단을 요구한 것이다.

한국공군과 정부는 공군력 증강의 목표달성을 위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다. 1952년 3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5월 16일에는 계획안에 대한 병력증가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⁹⁸⁾ 3개년 계획은 이렇게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미 정부 요인들에게 전달되었으며 김정렬 총장은 본 내용을 미 공군 주요장성들에게 서한 형식으로 전달하였다.

3개년 계획에 대해 제6146부대와 5공군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제6146부대장 포드(Ernest G. Ford) 대령은 3개년 계획을 보고하는 5월 20일자 문서에서 자신의 부대가 3개년 계획 작성 시 도움을 주지 못했는데

96) 위의 책, pp. 8-9.

97) 공군참모총장, 『대한민국공군 3개년 계획안』, 1951, p. 47.

98) 『국무회의록』, 1952년 3월 7일, 제18회, 공군일지, 1952년 5월 16일.

이는 향후 제6146부대의 조연내용에 대해 책임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며 “한국공군의 지원을 위한 규정이나 관련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호소하였다.⁹⁹⁾ 그는 3개년 계획에 대한 지원의사는 표명하지 않았지만 고문단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제5공군은 한국공군의 증강논리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김정렬 장군의 서한을 극동공군 사령관에게 전달한 5공군의 루이스(R. C. Lewis) 대령은 본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첨부했다. “한국공군이 요구하는 규모는 과도한 수치가 아니며 한국육군이 10개 사단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계획에 제6146부대가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¹⁰⁰⁾ 그는 계속해서 제6146부대가 훈련지원뿐만 아니라 군원의 창구역할도 수행하는 진정한 군사고문단이 되기를 희망했다.

이와 같이 제6146부대와 제5공군은 한국공군의 증강에 긍정적이었다. 하지만 극동공군은 미국의 전후 대한정책이 한국공군 증강에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했다. 합참의 전후 정책은 한국공군의 규모를 육군은 10개 사단, 공군은 1개 전투비행단, 1개 훈련비행단, 1개 수송비행대대로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합참의 정책에 대해 극동군사령관 리지웨이(Matthew B. Ridgway)는 육군 10개 사단에는 동의했지만 공군의 존재에는 부정적이었다. 이유는 2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한국의 경제가 공군을 감당할 수 없다. 둘째, 전후 한국공군은 공산공군보다 열세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공군이 지상군을 지원한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으며 한국에 문제가 생기면 극동공군이 다시 오면 된다. 무엇보다도 2등 공군은 없느니만 못하다.¹⁰¹⁾ 나아가 리지웨이는 한국공군을 육군에 편

99) From Colonel, USAF Adjutant General R. C. Lewis to Commanding General Far East Air Force, “ROKAF Three Year Plan,” (20 May 195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한국공군관련 미 극동공군 및 제5공군 단편명령, 서한 및 기타자료』, 미간행자료.

100) From Colonel, USAF Adjutant General R. C. Lewis to Commanding General Far East Air Force, “ROKAF Three Year Plan,” (20 May 1952), 공군역사기록관리단, 『한국공군관련 미 극동공군 및 제5공군 단편명령, 서한 및 기타자료』

101) J.S.P.C. 853/109/D, Post Settlement with withdrawal of United Nations Forces From Korea. June 1952. <RG 341>.

입시켜 근접항공지원임무만을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¹⁰²⁾

하지만 극동공군사령관 웨이랜드(Otto P. Weylanc) 장군은 리지웨이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한국공군에 대한 미국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군 작전참모차장 화이트(Thomas D. White) 중장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나는 리지웨이에게 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장할 수 없는 약소국의 군을 지원해 왔다. 군사력 증강이 필요한 국가를 지원하는 것은 한국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경제의 문제이다. 또한 전쟁이 재발했을 경우 극동공군이 다시 한국에 개입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한국공군 조종사는 북한군 조종사와 동등하거나 더 뛰어나다. 우리가 도와주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군사적인 도움은 균형적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 한국군 10개 사단은 공군 없이는 북한을 상대할 수 없다.¹⁰³⁾

현지 공군사령관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었던 미 공군 지휘부는 3개년 계획의 현실적인 실현 방안으로서 공군고문단의 설치를 추진하게 된다. 미 공군은 본 계획이 합참에 상정될 경우 육군과 극동군사령관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정부가 주미대사를 통해 미국정부를 직접 설득하는 방안을 추천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¹⁰⁴⁾ 미 공군의 조언을 받은 한국정부는 양유찬 주미대사를 보내 공군성 장관 핀레터(Thomas K. Finletter)를 비롯한 한국공군에 호의적인 미국 정부요인들을 설득했다. 김정렬 총장도 미 공군 참모총장 트와이닝(Nathan F. Twinning)에게 서신을 보내 양유찬 대사를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¹⁰⁵⁾ 합참에 있는 미 공군도 그들의 입장을 정리했다. 군의 영역을 넘어선 군원에 대해서는 “군

102) Ltr. From CG FEAF to USAF Deputy Chief of Staff. 4 May 1952. <RG 341>.

103) Ltr. From CG FEAF to USAF Deputy Chief of Staff. 4 May 1952. <RG 341>.

104) FEAF HQ. Air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5 May 1952. <RG 341>.

105) Ltr. From ROKAF Chief of Staff Kim Chung Yul to General. USAF. 5 July 1952. <RG 341>.

원물자는 한국정부가 미 국무부를 통해 요청해야 한다”라며 조언을 하는데 머물렀지만 고문단 설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적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KMAG이 육군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해군고문단이 1952년 2월 7일에 설치되었으나 공군 고문단은 없다. JCS 1776/271에 의하면 미국이 한국군의 조직, 훈련,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군고문단이 설치되어야 한다.¹⁰⁶⁾

한국공군과 정부의 노력과 미 공군의 지원은 합참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합참은 전후 미군의 철수 계획에 한국공군에 대한 전투, 훈련 및 조직을 지원하는 제6146부대가 포함되어 있으니 이를 대체하기 위한 공군 고문단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¹⁰⁷⁾ 그러나 한국공군의 전력증강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확장 대신 “장래 한국공군의 확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때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공하는 것”¹⁰⁸⁾ 즉, 공군고문단의 장래 역할에 기대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1952년 8월 4일 트와이닝 총장은 김정렬 총장에게 공군고문단 설치가 결정된 사실을 통보하며 제한적이지만 조만간 한국공군을 증가시켜 줄 것을 약속했다.¹⁰⁹⁾ 비록 전력증강이 당장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한국공군은 마침내 미 국무부가 인정하는 정식 고문단을 갖게 된 것이다. 국무부의 방침에 따라 제6146부대는 1952년 8월 16일부로 제6146공군고문단(6146th Air Advisory Group, ROKAF)으로 재조직되었다.¹¹⁰⁾ 공군고문단으로 승격한

106) Memorandum for General Twining, “Designation of an Air Advisory Group, Republic of Korea,” 23 June 1952. <RG 341>.

107) JCS. “Designation of an Air Advisory Group, Republic of Korea,” 30. June 1952. <RG 341>.

108) JCS. “A Three Year Plan for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8 Aug. 1952. <RG 341>.

109) Ltr. From General. USAF to ROKAF Chief of Staff Kim Chung Yul. 4 Aug. 1952. <RG 341>.

110) General Orders No. 495. “Redesignation of Unit,” by Command of Lieutenant General Barcus(14 Aug. 1952), “A History of Detachment I 6146th Air Advisory Group (ROKAF) 1 Jan. 1953-30 June 1953(RCS 1-AF-D2A), No. M0232.

제6146부대는 이후 규정과 근거를 가지고 한국공군이 제트전투기를 보유한 현대적인 공군으로 거듭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6146공군고문단은 1971년 4월 주한미합동군사지원단으로 통합될 때까지 한국공군을 지원했다.

5. 맺 음 말

6·25전쟁기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는 함께 싸웠고 함께 생존했으며 함께 성장하였다. 제6146부대는 그 규모는 작았지만 한국에 전개한 최초의 비행부대였으며 유엔군 비행부대 중 가장 먼저 최전방의 기지를 개척하여 임무를 수행한 부대였다. 이들의 노력과 성과는 한국공군이 독립성을 유지하고 나아가 UN공군의 일부로서 작전능력을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국공군은 6·25전쟁을 통해 진정한 독립군종으로 거듭날 수 있었고 제6146부대는 그러한 한국공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6·25전쟁기 한국공군의 성장과정을 제6146부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면 크게 4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제1기는 '부대 편성기'다. 이 시기는 1950년 6월 26일부터 7월 26일까지다. 6월 26일 긴급히 전투기를 획득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공군 조종사들에게 기종전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 편성된 바우트윈 부대는 충분한 준비 없이 한국공군과 함께 한국공군의 비행기를 타고 전투임무를 수행하였다. 전쟁 초기 혼란의 와중에서 한국공군의 존립이 위태로워지자 바우트윈 부대는 제5공군으로부터 한국공군과 함께 별도의 훈련과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허락받았고 부대는 제6146부대의 이름으로 재탄생하였다.

제2기는 '합동 전투기'다. 이 시기는 1950년 7월 27일부터 1951년 5월 31일까지다. 한국공군에 대한 지원을 주 임무로 하는 제6146부대가 탄생함으로써 한국공군에 대한 초보적인 수준의 훈련 및 전투지원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고문단이 아닌 지원부대였던 제6146부대의 도움은 정책적 고려나

계산보다는 즉흥적인 필요에 따라 행해지는 면이 많았고 한국공군의 성장을 위한 훈련이나 조직편성보다는 신속한 전투임무 출격을 통한 실적달성을 우선시하였다. 한국공군은 임무수행의 주도권 없이 제6146부대의 인솔에 따라 여러 차례 전선을 이동하며 전투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성장할 기회를 갖기 어려웠다. 결국 한국공군이 훈련에 전념하기 위해 1951년 5월 31일 전 전투부대를 사천으로 집결시키면서 이 시기의 합동작전은 종료되었다.

제3기는 '작전 독립기'다. 이 시기는 1951년 7월 초부터 1951년 말까지다. 사천으로 이동한 한국공군은 한국경찰을 지원하여 지리산의 게릴라에 대한 공격을 통해 작전능력을 인정받았고 제6146부대는 한국공군을 지원하여 한국공군이 스스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한국공군은 충분한 사전 준비와 계획을 통해 동부전선의 한국육군에 대한 근접항공지원임무를 부여받아 정식으로 유엔군 항공력의 일부가 되었다.

제4기는 '공군력 증강과 고문단 창설기'이며 1952년 초부터 휴전협정체결 일까지다. 작전적으로 독립한 한국공군의 다음 과제는 북한공군과 맞설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한국육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모를 신장시키는 것이었다. 당시 북한공군은 이미 1950년대 말부터 소련, 중국공군과 함께 맹렬히 UN공군을 공격하고 있었고 한국육군은 10개 사단규모로 성장하여 유엔군 전선의 35%, 병력 수 40%를 차지하고 있었다.¹¹¹⁾ 이에 반해 한국공군의 규모는 보잘 것 없었다.¹¹²⁾ 이러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공군은 전력증강과 전력증강의 창구인 공군고문단의 정식 설치를 요청하는 '대한민국 공군 3개년 계획안'을 작성했다. 한국공군은 이 계획안을 미국 정부와 미 공군 주요 인사들에게 전달하여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비록 미국 정부로부터 전력증강안의 통과는 반려했지만 공군고문단

111) 공군참모총장, 『대한민국공군 3개년 계획안』, 1951, p. 7.

112) 전투기 인가규모는 20대였으며 이 중 8대는 훈련임무에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위의 책, 1951, p. 6.

의 설치를 인가받아 장차 제트전투기를 보유한 현대공군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의 관계에서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작전독립의 노력이다. 한국공군이 스스로 임무능력을 신장하여 작전독립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공군은 제5공군 예하의 1개 부대로서의 임무에 만족해야 했을 것이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공군의 노력은 작전과 훈련 모든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작전능력이 한계점에 도달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훈련여건을 조성하여 전투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작전검열을 통해 이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후 당당히 한국공군의 이름으로 작전을 수행하였다.

둘째, 공군력 증강노력이다. 한국공군은 한미 정부와 미 공군을 상대로 적극적인 공군력 확장의 노력을 전개하였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전투기를 획득했고 전투부대의 전방전개계획을 구상하여 승인받았으며 3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미래 전력증강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중요한 점은 한국공군과 제6146부대가 주도하고 지원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최적의 균형을 모색하면서 발전하는 관계를 형성했다는 데 있다. 한국공군의 지향점이 전투능력 확보에서 작전독립을 넘어 전력증강의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6146부대의 역할은 전투수행에서 전투감독, 군사고문으로 변화해 갔다. 한국공군은 제6146부대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작전능력 향상과 전력증강을 실현할 수 있었다.

(원고투고일 : 2010. 3. 25, 심사수정일 : 2010. 4. 27, 심사완료일 : 2010. 5. 10)

주제어 : 6·25전쟁, 한국공군, 미 공군, 6146기지부대, 고문단, 3개년 계획, 북한 공군, 이승만, 헤스, F-51

<Abstract>

A Study on the Growth of ROK Air Force and the US Air Force 6146th Unit's Support during the Korean War

Jang, Sung-kyu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6146th Unit's support activities for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ROKAF) during the Korean War. The ROKAF and the 6146th Unit were living together, fought together, and grew together. Through the Korean War, the ROAKF could reborn into the real independence force and the ROAKF and the 6146th Unit had a strong partnership.

The ROKAF's growth can be largely divided into four phases. The First Phase is 'Unit Organization'. From June 26, 1950 until July 26. Baut-I unit were organized in order to accomplish a training mission to the ROKAF pilots. As the USAF-led air campaign gradually escalated, the ROKAF need independence training and operations. So Baut-I were approved to form the USAF 6146th Air Base Squadron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ROKAF.

The Second Phase is 'Joint Combats'. From July 27, 1950 until May 31, 1951. The support to the ROKAF was a central task of the 6146th Unit. The elementary training and combat support was executed to the ROKAF. But the ROKAF were hard to grow because the 6146th Unit were gripped the leadership and committed to move several times during the battle. When the ROKAF move the all combat troops in Sacheon to concentrate on training, The joint tasks of this time were ended finally in May 31, 1951.

The Third Phase is 'Operational Independence'. From the early 1951 to the end of July 1951, the 6146th Unit concentrated on expansion the abilities to

perform their own missions of ROKAF. The ROKAF was verified their operational capabilities through attacking against guerrillas in Mountain Jiri.

The Forth Phase is 'Air Power Reinforcement and Advisory Group Constitution'. From early 1952 until the signed day of the Armistice Agreement. The next subject of the ROKAF which attains an operational independence is to extend a size in order to face North Korea Air Force and to support the ROK Army. The ROKAF drew up 'ROKAF 3-Year Plan' which requests the potential assistance and establishment of the air force advisory group which is a window of war potential assistance. The ROKAF tried to elicit a favorable response of this blue print. Although the US Government refuse the plan, but the establishment of the air force advisory group was authorized.

There are some implication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AF and the 6146th Unit. First, is an effort of operational independence. If the ROKAF did not conduct the effort for operational independent by expansion of self ability, the ROKAF must be satisfied as one unit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 and couldn't make his own voice. The ROKAF's efforts were accomplished from all fields of operation division training. When the operational capability arrives to the every critical point, the ROKAF was actively created a training circumstance and improved combatant abilities. After operational inspection, the ROKAF proved his capability systematically and grandly accomplished an operation with the name of the ROKAF.

Second, is an air power reinforcement effort. The ROKAF developed the air force expansion campaign to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ROKAF acquired fighter jets by his own effort and approved front deployment plan of the combat troops. Also visualized 3 years plan for the future air force build up opportunity.

The important thing i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KAF and the 6146th Unit. It was not biased to 'support' or 'supported'. The directing point of the ROKAF goes over operational independence passed from securing battle ability and went over with war potential reinforcement. And the role of the 6146 Unit was from battle accomplishment changed in

location of director and military advisor. By this kind of relationship, they could achieve both objectives which are a operational capability improvement and a war potential reinforcement of the ROKAF.

Key Words : the Korean War, ROKAF, USAF, the 6146th Unit, Advisory Group, 3-year-plan, NKAF, Syngman Rhee, Dean E. Hess, F-51